

Apple

FY3Q17 실적발표에서 찾은 긍정적 시사점

● **반도체/디스플레이**

Analyst 김선우
02. 6098-6688
sunwoo.kim@meritz.co.kr

RA **주민우**

02. 6098-6688
minwoo.ju@meritz.co.kr

Apple, 견조한 실적과 가이드런스 제시 · Tech 산업 내 다수의 우려요인 해소

Apple은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은 발표함. FY3Q17의 매출액, EPS, 아이폰 출하량, 아이패드 출하량 등 대부분의 수치들이 시장 예상치를 능가함. 비록 중국 매출의 경우 하향세를 보였지만, 동사는 FY4Q17 매출액, GPM 등의 가이드런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했음.

Apple의 견조한 매출 가이드런스에서 찾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.

1) High-end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우려 완화: 가이드런스를 통해 동사는 하반기 신형 아이폰에 대한 출하량/평가 측면의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판단임. 사상 최고가 iPhone으로 추정되는 신제품의 High-end 스마트폰 시장 침투가 원활하다고 해석 가능함. 이는 최근 삼성전자 IM 부문의 보수적 사업 전망으로 인해 촉발된 High-end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 우려가, 구조적 이슈가 아님을 의미함. High-end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면, 세트 사업 뿐 아니라 메모리/디스플레이 패널/FPCB 등 부품의 평가 개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음

2) 신형 iPhone 출시 지연 우려 완화: 최근 Apple 향 3Q17 OLED 패널 매출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, 그 원인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했음. 신형 iPhone의 단순한 출시 지연이라면 내년까지 부품 출하는 원활할 수 있겠지만, 만약 Apple이 판매량 계획 자체를 축소시켰다면 이는 국내 Tech 업체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임. 하지만 Apple의 견조한 가이드런스는 신규 iPhone은 출하량이 감소하더라도 평가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가정했을 가능성이 높음. 결국 부품업체 역시도 질적 향상을 통한 평가 성장 전략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됨

[Apple FY3Q17 실적 발표 세부내용]

(실적발표 사이트 링크: <https://goo.gl/F2eSSn>)

▶ FY3Q17 실적 개요

- 매출 454억달러(-14% QoQ, +7% YoY), EPS 1.67달러 기록

[아이폰]

- 아이폰 ASP 606달러 (+1.8% YoY)
- 아이폰 출하량 4,100만대(-19% QoQ, +2% YoY)
- 아이폰재고는 330만대(5~7주차)로 근 2년내 가장 낮은 수치
- 아이폰7 plus제품의 판매확대로 인한 믹스개선으로 매출성장 기록

[서비스]

- 서비스 매출 72억달러(+3% QoQ, +22% YoY),
- App Store, Apple music streaming, iCloud 에서의 매출성장이 돋보임
- 간편결제의 도입으로 결제계좌는 지속 증가중
- 유료구독자의 수는 1.8억명으로 3개월간 2,000만명 증가

▶ FY3Q17 가이던스

- 매출은 490~520억달러 (컨센서스 491억달러)
- GPM 37.5~38%

[실적발표 Q&A를 포함한 보고서가 곧 이어 발간될 예정임]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선우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